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최 정 윤

2023년 8월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성봉

최정윤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최정윤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보영   
위 원 박정환   
위 원 김성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년 6월

<국문초록>

#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 매개효과

최 정 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2세~만 5세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본 연구를 위해 제주도 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417명을 군집 표본으로 추출하여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5)이 제

시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PSI-SF)를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 도구(K-PSI-SF)를 사용하였다. 훈육방식은 최윤희(2020)가 개발 및 타당화한 훈육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 & Wandersman(1978)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김정미, 임희선, 허성호(2014)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orea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K-PSO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각 변인들 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으로 구분하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합리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의 관계에서 훈육방식을 완전매개하며, 양육스트레스와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 각각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양육스트레스가 있더라도,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며, 감정적 ·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의 사용을 낮추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하고,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훈육방식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및 상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훈육방식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유아기 부모,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부모 효능감, 매개효과**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7
3. 연구모형 .....	8
4. 용어의 정의 .....	9
가. 양육스트레스 .....	9
나. 훈육방식 .....	9
다. 양육효능감 .....	9
II. 이론적 배경 .....	11
1. 양육스트레스 .....	11
가. 양육스트레스의 개념 .....	11
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발달 .....	13
2. 훈육방식 .....	15
가. 훈육의 개념 .....	15
나. 훈육방식 유형 .....	16
다. 훈육방식과 유아발달 .....	18
3. 양육효능감 .....	20
가. 양육효능감의 개념 .....	20

나.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소 .....	21
다. 양육효능감과 아동발달 .....	23
4. 변인들 간의 관계 .....	25
가.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 .....	25
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 .....	26
다.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의 관계 .....	27
라.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	28
<b>III. 연구 방법 .....</b>	<b>31</b>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31
2. 측정도구 .....	33
가. 양육스트레스 척도 .....	33
나. 훈육방식 척도 .....	34
다. 양육효능감 척도 .....	35
3. 자료처리 및 분석 .....	37
<b>IV. 연구 결과 및 해석 .....</b>	<b>38</b>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	38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	40
3. 매개효과 분석 .....	43
가.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합리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	43

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감정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	45
다.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과대허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	47
<b>V. 논의 및 결론 .....</b>	<b>50</b>
1. 논의 .....	50
2. 결론 및 제언 .....	53
참고문헌 .....	56
<Abstract> .....	67
<부록> .....	70



##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2
표Ⅲ-2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	33
표Ⅲ-3 훈육방식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	35
표Ⅲ-4 양육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	36
표Ⅳ-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 .....	39
표Ⅳ-2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	41
표Ⅳ-3 양육스트레스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	43
표Ⅳ-4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	45
표Ⅳ-5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	48

##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모형 .....	8
그림 IV-1 양육스트레스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 .....	45
그림 IV-2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 .....	47
그림 IV-3 양육스트레스가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 .....	4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는 출생 이후 가장 처음 이루는 사회 집단인 가족 안에서 구성원들과 접촉하며 사회적 기술을 익힐 뿐 아니라 기본적인 정서를 형성해 나간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역할은 어느 시기보다 자녀의 인지적,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현주, 김은영, 황인주, 이승미, 2008). 유아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양식을 배우며,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심리적인 환경이 유아의 기본적인 정서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도란, 김정원, 2003).

유아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래와 기관, 지역사회 등 자신만의 세상을 확장해 나가며,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신뢰를 두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는 곧 성공적인 삶과 귀결된다. 우리는 모든 과정을 사회화라고 정의한다(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15). 그러므로 모든 사회에서 부모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사회화하여 성공적으로 가르치는데 있으며(Baumrind, Larzelere, & Owens, 2010) 정부도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의 과제로 삼고 있다(교육부, 2019).

유아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특성이 있어 사회 기준에 맞게 부모나 교사는 유아에게 사회에서 허용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훈육(discipline)이라고 한다(Hurlock, 1978). 훈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가치체계를 자녀에게 가르쳐 자녀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며(Hurlock, 1978), 자녀가 긍정적인 행동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최숙경, 2004).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군사부일체라는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부모와 교사의 훈육은 ‘사랑의 매’로 미화되었고,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생각이 있었다(이진선, 2007). 매 등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을 훈육방식 중 하나로 여겨온 것이다(한경지, 2023). 그러나 최근에는 훈육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과거에는 당연하고 옳다고 받아들여졌던 훈육방법이 현재에는 아동학대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2).

우리나라 「민법」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계권’ 조항이 있었다.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행한 체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항이며, 많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서 가해 부모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근거로 악용해 왔다(이해완, 2020). 2021년 1월 26일 정부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여 친권자 징계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없애고, 가정 내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김선희, 2023). 하지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21)에서 초등 고학년에서 고등학생까지의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훈육방식으로서 체벌 사용에 동의하는 부모는 50.3%이며, 평소 자녀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60.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아직도 훈육의 방법으로 체벌에 동의하는 부모가 있고, 훈육과 체벌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혼란을 겪는 사람도 있다(김선희, 2023).

부모들이 훈육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훈육방식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원인은 첫째, 원 가족에서의 훈육방식이 답습되기 때문이다(Belsky, 1984). 원 가족에서 부정적인 양육 행동과 학대, 신체적 체벌 등을 경험한 부모가 자녀에게도 같은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훈육방식의 세대 간 전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문혁준, 2000; 신현정, 이은영, 2016; 이문희, 이수림, 2015; 이숙희, 고인숙, 심정선, 2009; Capaldi, Pears, Patterson, & Owen, 2003; Conger, Neppl, Kim, & Scaramella, 2003). 훈육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 교육의 부재로 제대로 된 훈육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이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어떻게 양육하며 지도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김지혜, 정익중, 이희연, 김경희, 2013; 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따라서 부모의 훈육방법과 관련한 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의 양육에 관한 여러 연구는 부모의 비일관적이며 강압적 처벌, 지나치게 방임적인 훈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연관됨을 증명하였다(Bandura & Walters, 1959; Glueck, 1950; McCord & Howard, 1961). 유아에게 신체적 처벌을 하거나, 복종을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훈육하는 방식은 유아의 정서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결과 유아는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김민정, 도현심, 2001; 이경남, 2001). 이를 통해 볼 때 부모의 양가적인 훈육방식은 유아의 정서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임희수, 2001),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가 애정적·지지적이어야 하며, 유아의 부정적 행동에는 강압적 처벌 등으로 유아의 행동을 제압하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논리적·합리적으로 훈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최선녀, 문영경, 2016). 비효율적이며 비일관적인 훈육방식은 아동의 행동 문제를 발달시키고 지속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효율적인 훈육방식과 비효율적인 훈육방식을 구분하고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김은영, 2005). 어린 시기에 형성된 공격성 등 외현화 문제는, 잘못된 훈육방식을 바로잡기 위한 부모 훈련이 학령 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행동 문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Forehand, Wells, & Griest, 1980; Webstyer-Stratton, Kolpacoff, & Hollinsworth, 1988), 청소년의 행동 문제를 바로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Kazdin, 1987) 초기에 부모의 잘못된 훈육방식을 감지하고 바로잡는 것이 아동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처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을 변화시키고 바람직한 훈육방식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는 아동 권리 실현의 책임이 있는 국가와 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김선희, 2023). 본 연구를 통해 훈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부모가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 부모 교육 및 상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모의 훈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녀의 훈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경제적 빈곤은 자녀 양육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편은숙, 2004), 아버지의 월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최영미, 이희영, 2017), 전문직에 종사할수록(최혜정, 2016)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양육 태도 및 훈육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훈육과 학대의

인식 간에도 차이(오정옥, 이경원, 2015)가 있으며, 자녀의 연령(위호성, 2014)도 양육태도 및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인구학적 변인은 훈육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나 훈육방식에 있어 부모 개인적인 특성이나 아동의 기질, 성별과 같은 개별적 특성의 영향력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이 처한 맥락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김은영, 2005). 누구나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에 대한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와 관련되어 유아의 사회적 적응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 Abidin(1992)은 부모 역할 수행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로 개념화하였는데, 최근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증가하면서 부모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 부모들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지고 있다(김지영, 2015).

박영애(1995)는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인 양육 행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으며,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초기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로 하여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탐색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우울 성향이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쳐 비효율적인 훈육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Sim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부모의 부정적인 기분이나 스트레스는 부모의 처벌적인 훈육 행동을 유발하고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음으로 직접 또는 양육 행동을 통하여, 유아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연구(Snyder, 1991)도 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로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함을 밝힌 연구들(박성연, 진춘애, 한세영, 1996; 유우영, 이숙, 1998; Abidin, 1992; Crnic & Greenberg, 1990)을 통해 양육스트레스가 축적되면 부모의 훈육방법이 부정적인 훈육방식 즉, 강압적이고 감정적이며 처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결국에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 가운데 양육효능감은 유아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부모 자신

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의미하는데(박만호, 2014), 양육스트레스와 훈육 방식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영미, 김정미, 2017; 서소정, 2004; 조경희, 도미향, 2016; Cutrona & Troutman 1986; Gross et al, 1994; Gross, Conrad, & Wothke, 1994; Levy-Shiff et al, 1998; Scheel & Rieckman, 1998).

또한 양육효능감이 낮아진 부모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하도록 촉진된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즉, 양육효능감은 훈육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김혜원(2018)은 양육효능감이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으로 훈육을 하게 하는 신념이 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실제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할 때 양육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는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고(문혁준, 1999; 우희정, 이숙 1994; Coleman & Karraaker, 1997; Dorsey et al., 1999; Mondell & Tyler, 1981; Teti & Gelfand, 1991),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감정적이고 비효율적인 훈육방식을 취한다는 연구가 지속해 보고되고 있다(김은영, 2005; 안지영, 2001; 양옥승, 이정란, 2003; Sanders & Woolley, 2004).

따라서 부모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양육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훈육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자녀가 좀 더 건강하게 소통하도록 돕고, 전체 사회가 긍정적인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훈육방식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훈육방식보다는 양육 태도에 초점을 두거나, 강압적이고 체벌적인 훈육방식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체벌이 금지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동을 훈육하는 방식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전체적인 양육태도 보다는 구체적인 훈육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증명하여, 부모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와 양

육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상담심리분야에서 매개효과 검증은, 개입을 통해 발생하고 다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의가 있다(Mackinnon & Dwyer, 1993). 또한 매개효과 검증이 상담 과정에서 보다 초점을 두고 개입할 변인들을 확인하고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서영석,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내의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그리고 훈육방식의 관계를 파악하고,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가설 1.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2.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과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반응형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감정적 반응형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3. 연구모형

매개효과(Mediational Effects)는 예측변수인 X가 준거변수인 Y에 미치는 효과를 제3의 변수인 M이 매개하는 효과를 일컫는다(Baron & Kenny, 1986).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위한 매개모형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첫째, 1)예측변수와 준거변수, 2) 예측변수와 매개변수, 3) 매개변수와 준거변수 간의 개별적인 관련성을 지지하는 이론 혹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통합한다(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의 관계를 밝혔으며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신뢰도가 높은 측정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신뢰도가 낮을 경우 매개효과뿐만 아니라 예측변인의 효과 또한 적절히 추정되지 못하게 된다(서영석, 2010).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양육효능감 검사도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양호한 신뢰도를 갖추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  계수가 .875로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그림 I-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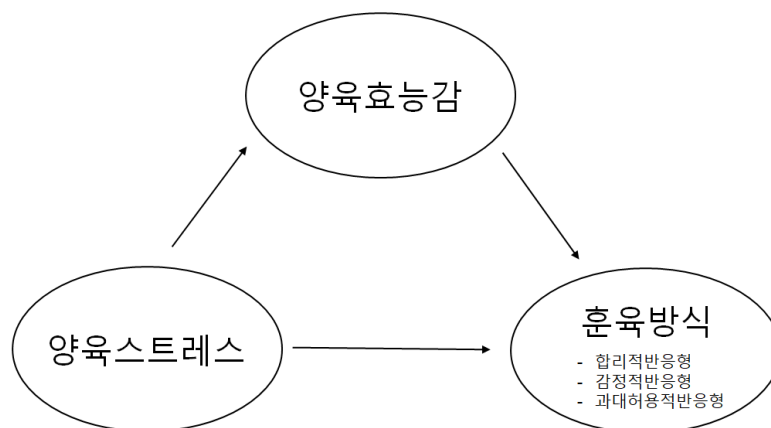


그림 I-1 연구모형

## 4. 용어의 정의

### 가.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란, 부모 역할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느끼게 되는 특정한 스트레스를 말한다(Abidin, 1992). 양육스트레스를 잘 설명하는 세 가지 요소는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이다(Abidin(1995)). 본 연구에서는 Abidin(1995)이 제시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PSI-SF)를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도구(K-PSI-SF)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나. 훈육방식

훈육이란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에서 요구되는 가치체계에 아동의 행동을 맞춰가는 수단이며,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것이다(이현주, 2003). 이러한 훈육을 위해 부모가 유아에게 취하는 태도를 훈육방식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윤희(2020)가 개발한 훈육유형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하위요인은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이다. 하위요인별 총점이 높은 것이 주로 사용하는 훈육방식이 된다.

### 다.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이란 유아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라고 하며, 효율적으로 유아의 행동을 관리하고 유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신감과 인지적 판단 능력 및 수행기술에 대한 의식이다(박만호, 2014). 본 연구에서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김정미, 임희선, 허성호(2014)

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orea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K-PSOC)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는데, 하위요인은 유능감, 안정감으로 구분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양육스트레스

#### 가. 양육스트레스의 개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부모의 역할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만족감이나 행복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심리적 우울, 경제적 부담, 육체적 피로 등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도 상존하고 있다(이연숙, 2016). 이 부정적인 측면을 양육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양육스트레스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곤란함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부담감과 불편함을 정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말한다(이윤주, 김진숙, 2012).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기현(2000)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distress), 그리고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안지영(2001)은 양육스트레스란 자녀 양육에서 오는 곤란함의 정도와 부담감, 생활상의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어머니에게 느껴지는 성가심, 어려움, 짜증 등으로 정의하였다. Abidin(1992)은 부모 역할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느끼게 되는 특정한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로 정의 하였고, Crnic 과 Greenberg(1990)은 양육스트레스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부담감이나 불편함 혹은 긴장 등이라고 정의하였다.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은 일상적 스트레스인 환경 및 상황적 특성, 부모 특성, 자녀 특성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일상적 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녀를 돌보는 일과 관련된 신체적 요구, 생활에서의 제한, 취업, 주거환경, 경제적 여건 등을 말한다(안정신, 2020). 백영숙(2017)은

일상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가족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 특성 요인으로 자녀와의 부정적 관계, 부모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 역할 부담의 과중, 불안정 애착 등은 양육스트레스 발생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김창복, 이신영, 2013). Abidin(1992)은 우울, 애착, 역할 제한, 유능감, 사회적 고립, 배우자와의 관계, 건강 상태 등 7가지 요인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녀 특성 요인으로는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 까다로울수록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으며(박해미, 1994), 많은 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 정서적 고통, 또래관계 문제나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의 모습이나 행동에 실망감과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을 경험할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였다(장희정, 2005). 예를 들면, 잠을 잘 자지 않는, 예민하고 울음이 많은, 밥을 잘 먹지 않는,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자녀 특성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또한 Abidin(1990)은 자녀 행동 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지각 정도, 일반적인 생활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상호 지향적 스트레스 관점을 추구하는 학자인 Lazarus & Flokman(1984)은 어머니가 양육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어머니 자신의 정의적, 인지적 특성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지각된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일상적 스트레스로서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 혹은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 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송정애, 2016).

양육스트레스의 구성요소에 대해, 김기현과 강희경(1997)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부모 역할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정신적 고통’,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으로 유형화하였다. Abidin(1995)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로 부모의 역할 수행과정에 겪는 스트레스인 ‘부모의 고통(Parental Distress; PD)’,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와 적절한 반응을 자녀에게 하지 않는 부모 간의 ‘상호작용인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P-CDI)’, 그리고 부모가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아동의 행동을 측정하는 ‘까다로운 아동(Difficult Child; DC)’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bidin(1995)이 제시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PSI-SF)를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도구(K-PSI-SF)를 사용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한다.

#### 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발달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녀 관계가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자녀 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이민자, 200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애착과 같은 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홍윤정, 2022). 유아는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양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를 통해 유아의 긍정적인 언어발달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송경화, 2017).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 수용과 같은 긍정적 행동을 하지 않으며, 자녀의 행동에 규칙을 정해주지 않는 무관심한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다(김하나, 2018). 이처럼 유아와 부모 간에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지속될 때 유아의 언어발달 지연이 나타난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하지 못하며 자녀의 정서·사회적인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in & Moon, 201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는 낮은 집단에서 더욱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낮게 나타난다(문혜련, 1998). 또한 부모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양육 불안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불안 지능이 낮아지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김지현, 2006). 이 밖에도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자아존중감(강정민, 2015),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이연숙, 2016),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임부용, 2019)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리하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적인 가족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다(안정신, 2020). 특히 연령

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표영희, 1997). 또한 자녀가 유아기에 이르게 되면 자율성 욕구는 많이 증가하지만 스스로 행동 조절은 안 되어 고집스러운 저항으로 부모의 한계를 시험하는 반면, 부모는 유아의 보다 성숙한 행동을 기대하는 상충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겪는 부모의 내적 갈등이나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게 된다(정계숙, 차지량, 김미나, 2019; Dix, Ruble, & Zambarano, 1989).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유아 시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겪는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 2. 훈육방식

### 가. 훈육의 개념

많은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는 양육과 훈육은 양육 태도(child rearing attitude), 양육방식(parenting style),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훈육(discipline)과 같은 용어들을 유사한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해 왔다(정신혜, 2019). 그러나 양육에 대하여 Winch(1971)는 좁은 의미로는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의, 식, 주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먹이기, 씻기기, 옷 입히기 등의 아동을 돌보는 것이며 넓은 의미로는 말과 행동, 신체적 접촉을 통해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반면 훈육은 바람직한 태도로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아동 스스로가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최숙경, 2004). 따라서 훈육과 양육을 비교하면 양육이 훈육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과 훈육의 용어를 구분하여 양육이 아닌 훈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학자들이 정의한 훈육의 개념을 고찰하고,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한자어 훈육(訓育)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치며(訓) 기른다(育)는 말이다. 또한 영어 훈육(discipline)의 어원은 ‘가르치다, 교육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disciplina이다. 동·서양의 이러한 어원을 통해 정의하면 훈육이란, 부모나 교사를 포함한 성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인도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최윤희, 2020).

Hurlock(1964)은 훈육이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따라야 할 도덕적 행동을 가르치는 사회적 삶의 방식으로서 아이들에게 세상은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어떤 행동은 벌을 받고 어느 정도의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을 가르치며, 아동이 자기통제(self-control)와, 자기훈육(self-discipline)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Breckenridge와 Vincent(1965)는 훈육을 아동에게 심한 억압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며, 아

동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통제하면서 사회화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Baumrind(1991)는 훈육을 자녀가 바람직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명적이고 비 처벌적인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훈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현주(2003)는 훈육이란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에서 요구되는 가치체계에 아동의 행동을 맞춰가는 수단이며,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 내용들을 토대로 훈육을 정의하면, 훈육은 미성숙한 아동에게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용납되는 말과 행동을 가르쳐 성장하도록 돕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나. 훈육방식 유형

부모가 아동의 훈육을 위해 취하는 태도를 훈육방식이라고 한다. 어떤 훈육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조은영, 2009). 생애 초기 아동에게 성인에 의한 지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것이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느냐, 부정적 영향을 주느냐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근거한 훈육방식이, 훈육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최윤희, 2020). 부모가 자녀에게 일관된 훈육방식을 사용할 경우 아동의 사회 적응력, 정신건강 수준, 자아 존중감, 과제수행 능력 등이 높게 나타난다(권소영, 2003). 훈육방식의 유형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다.

Hoffman과 Saltzstein(1967)은 애정철회(love withdrawal), 권력단언(power assertion), 귀납적 훈육방식(induction)으로 훈육방식을 구분하였다. 애정철회는 자녀와 대화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의사소통을 하고, 아동을 부모의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거나 혼자 두는 등 분리 및 유기(遺棄)의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권력단언은 부모가 가진 권력으로 벌을 주거나 신체적, 정서적 위협을 가하여 아동이 느끼는 두려움을 이용하는 통제 방법이다. 귀납적 훈육방식은 설득이라고도 하며, 아동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스스로 적절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Baumrind(1971)는 훈육방식을 권위적(authoritative),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인 유형으로 분류하고 권위적 훈육방식을 가장 바람직한 훈육방식으로 강조하였다. 첫 번째, 권위적 훈육방식은 강압적이지 않고 아동에게 합리적인 제안 속에서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아동이 스스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권위주의적 훈육방식은 부모와 자녀 간의 요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방식이다. 권위주의적인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부모는 아동과 상호작용 없이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아동은 부모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전하면서 부모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받거나 억압을 받게 된다. 이런 아동들은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이며, 적대적인 환경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를 두려워한다. 세 번째 허용적인 훈육방식은 아동의 행동을 거의 통제하지 않는 유형으로 아동이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수용하지만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Gottman(1997)은 감정코치형, 무시형, 비판형, 방임형의 네 가지 훈육방식으로 분류하였으며 감정코치형은 부모가 아동에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아동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훈육방식이다. 무시형은 아동의 감정을 무시하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방식이다. 비판형은 아동의 행동과 감정을 부모의 잣대로 판단하고 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만을 주는 방식이다. 방임형은 부모가 아동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하여 어떤 지침이나 가르침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Clazada & Eyberg(2002)는 강압적 체벌, 방임, 논리적 설명으로 구분하였다. 강압적 체벌은 부모의 권력을 이용하여 신체적·언어적 체벌로 아동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훈육방식이다. 아동이 갖고 있는 좋아하는 것을 제거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장시간 벌을 세우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방임은 아동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아동에게 부모가 느낀 실망감과 불안감, 노여움 등을 표출하는 훈육방식이다. 이와 같은 훈육방식은 언어적·신체적으로 강압적인 훈육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적인 훈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의 애정과 사랑의 제공, 안전을 아동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위협의 일종으로서 아동으로 하여금 큰 죄책감과 분노를 유발시킨다(김선미, 2015). 논리적 설명은 부모가 아동의 행동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

는 영향을 생각하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바람직한 훈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최윤희(2020)는 Baumrind(1971)의 이론을 토대로 훈육방식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재정의하였으며, 권위적 훈육방식의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합리적 반응형(rational discipline style), 권위주의적 훈육방식의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감정적 반응형(emotional discipline style), 허용적 훈육방식의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과대허용적 반응형(overly permissive discipline style)이라 명명하였다.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은 온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의 발달에 맞게 행동 기준을 설정하여 아동에 대한 존중과 설명, 모델링, 귀납적 추론 방식 등으로 지도하는 훈육방식이다.

감정적 반응형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아동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가 감정적이고 강압적인 형태로 행동하여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협박, 체벌 등을 통해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는 훈육방식이다.

과대허용적 반응형은 겉으로 보기에 부모가 아동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부모가 양육에 대한 확신과 권위가 없어 아동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며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는 훈육방식이다. 이때 부모는 스스로가 아동을 잘 훈육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최윤희(2020)가 개발한 훈육유형 척도를 사용할 계획이다.

#### 다. 훈육방식과 유아발달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훈육방식이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훈육방식에 따른 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에 관련된 연구결과(나은주, 2002; 문혁준, 2002; Laskey & Cartwright-Hatton, 2009; Matza, 2001), 체벌을 위주로 훈육하거나 위협적인 훈육을 하는 부모의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태도를 강력한 공격적 모델로 모방할 수 있으며(Bandura, 1973), 이는 아동의 공격성과 연결된다(김민정, 2001). 거부적이며 통제적인 태도를 보이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훈육방식은 자녀가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며,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유아는 또래에게 거부당하기 쉬우며 낮은 사회적 유능성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홍혜진, 2017).

부모의 훈육방식과 기본생활 습관 및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김현정, 2008; 신미향, 2003; 이봉선, 1988)에서는, 훈육유형이 강압적일수록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높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의 훈육유형은 체벌을 사용하는 강압적 훈육방법보다 높은 인지적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며 성숙한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enry, 1980).

이 밖에도 부모의 통제와 유아의 자율성의 관계(김주희, 2014),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전은희, 2008),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자율성 및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이지혜, 장영숙, 2016),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김경희, 2000), 아버지의 훈육방식과 아버지-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장형규, 이은정, 김낙홍, 2020) 등이 있다. 이처럼 훈육방식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 많은 연구는 그만큼 부모의 훈육방식이 아동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종합해 보면, 많은 학자가 훈육방식에 대해 다양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훈육방식의 유형은 크게는 긍정적 훈육방식과 부정적 훈육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훈육방식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나누는 기준은 부모가 어떤 유형의 훈육방식을 선택하여 아동 양육에 사용하였을 때,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에 달려있다. 부모의 훈육방식 선택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경험, 그리고 개인적 상황, 성격,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매체와 교육을 통해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철회하고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올바른 훈육방식을 선택하고 부모의 일관성 있는 훈육이 이루어질 때 아동들은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3. 양육효능감

#### 가. 양육효능감의 개념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의 개념에서 나온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 양육의 기술 및 문제해결력에 대한 자기 평가 수준을 의미한다(Johnston & Mash, 1989).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녀를 애정을 가지고 돌볼 수 있게 하며, 자녀가 규칙을 준수하고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하도록 훈육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기에 부모로서의 실제적인 부모 역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성지현·백지희, 2011).

국내·외 많은 학자를 통해 다뤄진 양육효능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eti와 Gelfand(1991)는 양육효능감을 효율적으로 양육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믿음이라 정의하였으며, Scheel과 Rieckman(1998)은 양육효능감에 대하여 부모로서 과업을 완수하고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자각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Luster와 Kain(1987)는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 정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양육효능감은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며,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잘 조정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양육 행동에서 중요한 인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한 양육 행동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져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사회·심리적 적응이 자녀의 인지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아울러, 국내 연구에서도 양육효능감은 유아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이라고 정의하고(최형성, 정옥분, 2001), 유아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라고 하며, 효율적으로 유아의 행동을 관리하고 유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신감과 인지적 판단 능력 및 수행 기술에 대한 의식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박만호, 2014). 또한 양육

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행동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양육 행동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조영숙, 2008).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볼 때,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양육 행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자녀 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나.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소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은 인지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 부모효능감과 정서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 부모의 좌절감 및 불안감으로 구분하여 양육효능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두 영역을 제시한다. Coleman과 Karraker(1998)는 영역별, 과제별, 영역일반 효능감의 세 가지 유형으로 양육효능감을 구분하였다. 첫째, 영역별 양육효능감은 구체적인 양육과제를 유사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의 부모의 기대감과 자신감을 의미한다. 영역별 양육효능감의 예로는 놀이영역, 지원과 사랑영역, 교육 영역 등이 있다. 둘째, 과제별 양육효능감은 구체적인 양육과제를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감과 자신감이며, 셋째, 영역일반 양육효능감은 아동 양육 과정의 전반적인 상황과 양육 행동에 대하여 부모가 지각하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말한다. Allen(1993)은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인으로 사랑, 교육, 의사소통, 통제, 전반적인 효능감 등 다섯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하위영역별로 세부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양육효능감을 측정한다. 즉, 사랑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 교육은 자녀를 가르치는 능력, 의사소통은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 통제는 자녀를 훈육하는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다. Elder et al.(1995)는 양육효능감을 부모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부모가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두 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Dumka et al.(1996)은 부모 역할에 대한 유능성의 지각을 단일요인으로 제시하면서 부모 자녀 간의 갈등 해결능력, 양육 지속성, 양육에 대한 노력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양육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소를 제시한다. 이수정(2017)은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소로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전반적인 양육능력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에 대한 지식 및 행동을 포함하여 그것을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아동의 심리 정서 및 신체 건강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능력은 아동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소통을 하는 능력이고, 학습지도 능력은 아동의 학습을 돕는 능력이며, 훈육능력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고 교정하는 능력을 말한다(이수정, 2017). 박성환(2012)은 양육효능감을 양육자신감, 양육기술, 학습코칭능력, 긍정적 양육노력, 양육관리능력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박만호(2014)는 양육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돌봄, 사회적 가치 및 규범, 자녀교육, 자녀와의 의사소통, 놀이, 가사참여, 가정화목, 공동양육, 경제적 부양, 전반적인 효능감으로 구분하였다. 신숙재(1997)는 Giband-Wallston 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하여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소를 양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부모로서의 좌절감, 불안감으로 구분하였다. 김정미·임희선·허성호(2014)는 Giband-Wallston 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기반으로 한국에 적합한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양육효능감을 유능감과 안정감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유능감 요인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하고, 부모 역할을 바람직하게 해낼 수 있다는 부모 스스로의 판단과 확신 정도를 나타낸다. 두 번째, 안정감 요인은 부모 역할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안정감의 정도를 나타낸다(김정미·임희선·허성호, 2014).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의 구성 요인을 김정미·임희선·허성호(2014)가 제시한 유능감과 안정감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척도는 한국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양육효능감과 관련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행동, 훈육방식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oleman & Karraaker, 1997; Dorsey et al., 1999; Mondell & Tyler, 1981;



Sanders & Woolley, 2004; Teti & Gelfand, 1991; 김은영, 2005; 문혁준, 1999; 안지영, 2001; 양옥승, 이정란, 2003; 우희정, 이숙, 1994). 양육효능감이 주목 받는 이유는 부모들이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꾸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사전계획 없이 부모역할 수행에 마주하게 되어 자녀의 양육과 가족의 생활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박준희, 2009).

이번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여준다면 부모교육 및 상담에서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개발 및 활용되어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훈육방식을 선택하는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다. 양육효능감과 아동 발달

유아 시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인간관계, 생각, 사물에 대한 태도, 행동, 감정을 결정하는 자아가 형성되고 어릴수록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다(최미향, 2003). 따라서 부모가 어떠한 가치관, 양육 목표 및 태도, 신념을 가지는가는 양육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아동 발달에 다양한 결과를 가져온다(Darling & Steinberg, 1993; Luster, Rhoades, & Hass, 1989). 즉, 부모로서의 신념과 기대감인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박현숙, 2018).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컨대,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적절한 상호작용 행동 및 능력과 상관성이 있으며(Hagekull, 1987),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자녀는 유아의 사회성 및 심리적 안녕에 대해 긍정적인 발달을 보인다(Junttila, Vauras, & Laakkonen, 2007). 또 그와 반대로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의 경우 유아에게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긍정적 자아존중감 발달을 방해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Coleman & Karraker, 2003).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과민성, 안정성, 자

기 중심성, 협조성 등 사회적 능력이 서로 상관이 있으며(문태형, 2002),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 행동과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Dorsey, Klein, & Forehand, 1999).

이 밖에도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행동적 발달 수준(Coleman & Karraker, 2003) 및 과잉행동(Mash & Johnston, 1983), 그리고 영유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Bornstein, 1988), 학업성취(Bandura, Barbaraneli, Caprara, & Pastoreli, 2001)등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등 유아의 발달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육 행동을 자주 보인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발달에서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4. 변인들 간의 관계

### 가.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과의 관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고, 어머니의 취업증가,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있다(홍윤정, 2022). 대체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은영, 2005). Abidin(1992)은 양육스트레스 수준과 역기능적 양육 행동 간의 관계는 단순히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매우 낮은 양육스트레스도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자녀를 훈육하는데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다원, 20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강압적이고 감정적인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윤영, 김지혜, 조선미, 홍성도, 오은영(2002)은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주어 자신을 무기력하게 느끼게 하며 결국 이러한 증상들은 자녀에 대한 강압적인 훈육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안지영(2001)은 자녀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부모의 특성에 의한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권위주의적인 훈육태도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즉,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비난이나 명령을 사용하는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신숙재와 정문자(1998)는 딸을 키우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강압적인 양육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장영애와 박정희(2009)는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와의 애착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부모의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더욱 짜증을 내는 등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방임적이고 과대허용적인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Wacharasin(2001)은 스트레스를 겪는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자녀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느끼고, 자녀의 요구에 덜 반응하며 그 결과로 자녀

는 반응이 더디고 명확하지 않은 신호를 보내 부모가 자녀의 신호에 반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단서의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Crnic, Greenberg, & Slough, 1986). 장인숙(2001)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소홀하며,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무관심한 양육태도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감정적이고, 과대허용적인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취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

양육스트레스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곤란함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부담감과 불편함을 정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하며(이운주, 김진숙, 2012), 양육효능감은 유아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이라고 정의한다(최형성, 정옥분, 2001).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Elder, Eccelles, Ardet, & Lord, 1995).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은 낮아지고,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하도록 촉진한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Cutrona & Troutman 1986; Gross et al., 1994).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부모의 양육 자신감이 저하되어 양육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정신자, 2020).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vy-Shiff et al.(1998)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효능감 중, 특히 양육효능감에 더 큰 부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고, Scheel과 Rieckman(1998)은 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서소정(2004)은 어머니의 연령과 소득수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을 보인다고 하였고, Gross, Conrad, & Wothke(1994)는 미국 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소득수준, 연령,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김영미와 김정미(2017)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 부적인 상관관계의 결과를 밝혔으며, 이는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와 부모 역할에 대한 적응, 그리고 어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동기를 갖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경희와 도미향(201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은 낮아지고,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하도록 촉진한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즉,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하기 쉬우므로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발달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은영, 2005).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부(-)적 관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감소시키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다.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의 관계

양육효능감이 유아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최형성·정옥분, 2001)이라면, 외현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을 훈육행동(김혜원, 2018)이라고 하며, 부모가 훈육을 위해 취하는 태도를 훈육방식이라고 한다. 김혜원(2018)은 양육효능감이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으로 훈육을 하게 하는 신념이 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실제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할 때 양육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들은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녀를 능력과 잠재력이 많은 존재로 여겨 문제 해결 상황에 있어서 적절한 도움을 주고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Mondell & Tyler, 1981). 또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 대해 효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문혁준, 1999; 우희정, 이숙, 1994),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끈다(Coleman & Karraaker, 1997; Dorsey et al., 1999; Teti & Gelfand, 1991).

반면에 양육효능감이 낮아질수록 부모는 감정적인 과잉반응이나 비효율적인 훈육방식을 취할 수 있다(Sanders & Woolley, 2004). 즉 양육효능감은 부정적이고 비효율적인 훈육방식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더욱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훈육을 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다(김은영, 2005; 안지영, 2001; 양옥승, 이정란, 2003).

종합해보면,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 즉 훈육방식의 주요 근원이 됨을 보여준다(Bandura, 1997). 또한 양육효능감이 긍정적인 훈육방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 중 일부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밝히기도 했으며, 아동의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아의 어머니는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여아에게는 강압적인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없었다(신숙재, 정문자, 1998). 이처럼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혹은 훈육방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라.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은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간에 이미 강한 관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관계이면에 존재하는 심리과정을 탐색하고 싶을 때 매개변인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서영석, 2010).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 양육효능감 세 변인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선행연구결

과를 토대로 양육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과 비슷한 맥락을 취하는 훈육유형,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이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숙재, 정문자, 1998; 안지영, 2001).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받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양육효능감은 낮아지고,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강압적인 양육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Abidin(1992)은 양육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와 여러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정도가 그 상황에서의 부모 행동을 결정하며, 부모의 효능감과 같은 대처자원은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다. 국내에서도 김은영(2005)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인식과 부모인식이 훈육유형 간의 관계에 있어 양육효능감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혔으며, 정신자(2020)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성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양육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논리적 설명의 경향성이 높아지며 긍정적인 훈육유형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 밖에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문제 요인들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시되고 있다(최형성, 2005; Shumow & Lomax, 2002). Teti와 Gelfand(1991)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우울, 배우자 및 사회지원, 어머니의 자녀 양육능력, 유아의 기질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Shumow와 Lomax(2002)은 양육효능감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 요인들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을 밝혔다. 또한 Cutrona와 Troutman(1986)은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산후 우울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오정윤과 심숙영(2013)은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우울, 남편의 지지와 유아의 사회정서 행동문제 간에 매개역할 하는 것을 밝혔고, 이인화 등(201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에 양육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양육효능감이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이 직·간접적인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이 검증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영석(2010)은 상담심리분야에서 매개효과 검증이 상담 과정에서 보다 초점을 두고 개입할 변인들을 확인하고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인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예측변인이 아니라 매개변인에 초점을 두고 상담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입증된 세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고 향후 부모교육 및 상담의 개입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만 2세-만 5세 아동 19,847명(제주특별자치도, 2022)의 부모 중 주 양육자로 한다. 표본 수는 ‘최대허용오차  $\pm 5\%$ , 신뢰수준 95%에 해당하는 표본 크기(성태제, 시가자, 2006)’를 근거로 하여 377명 이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군집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제주도내에 위치한 7개의 어린이집을 선정 하였으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각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유아를 통해 각 가정의 부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불성실 응답을 줄이기 위하여 유아를 통해 부모에게 설문지를 배포할 때에는 연구주제와 목적에 대해 쉽게 설명된 작은 메모지를 설문지에 부착하여 배포하였으며, 성실한 응답에 대한 답례로 연구주제와 연관된 유아를 훈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칭찬스티커를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450부를 배포하여, 432부 회수(회수율 96%)하였고 응답의 오류 및 결측값이 발생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하여 총 417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의 성별은 남성 52명(12.5%), 여성 365명(87.5%)으로 부모 중 ‘모’인 여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연령대는 25세 이하 1명(0.2%), 26-30세 8명(1.9%), 31-35세 94명(22.5%), 36-40세 169명(40.5%), 41세 이상 145명(34.8%)으로 36-40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하는 자녀의 수를 묻는 질문에는 2명 215명(51.6%), 1명 125명(30%), 3명 이상 77명(18.5%) 순으로 나타

났다. 자녀의 연령은 만 2세(4세) 49명(11.8%), 만 3세(5세) 103명(24.7%), 만 4세(6세) 115명(27.6%), 만 5세(7세) 150명(36%)로, 만 5세(7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맞벌이 323명(77.5%), 외벌이 94명(22.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총수입은 501만원 이상 231명(55.4%), 401-500만원 92명(22.1%), 301-400만원 58명(13.9%), 300만원 이하 36명(8.6%)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17)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52	12.5
	여	365	87.5
부모연령	25세이하	1	0.2
	26-30세	8	1.9
	31-35세	94	22.5
	36-40세	169	40.5
	41세이상	145	34.8
자녀수	1명	125	30.0
	2명	215	51.6
	3명이상	77	18.5
자녀성별	남아	211	50.6
	여아	206	49.4
자녀연령	만 2세(4세)	49	11.8
	만 3세(5세)	103	24.7
	만 4세(6세)	115	27.6
	만 5세(7세)	150	36.0
맞벌이유무	맞벌이	323	77.5
	외벌이	94	22.5
총수입	300만원이하	36	8.6
	301-400만원	58	13.9
	401-500만원	92	22.1
	501만원이상	231	55.4

## 2. 측정도구

### 가. 양육스트레스 척도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5)의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를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 스트레스 축약형 검사도구(Korean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의 자기보고 형식으로 만 1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부모의 고통(PD),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까다로운 아동(DC)의 3개 하위 척도로 측정한다. 하위척도별로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총점수의 범위는 최저 36점에서 최고 180점까지 가능하며 총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임상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본다(Abidin, 1990).

정경미 등(2008)의 연구에서 총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1이었으며, 하위 변인 신뢰도는 부모의 고통(PD) .84,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76, 까다로운 아동(DC) .84로 나타났다. 다음 표Ⅲ-2는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묻는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부모의 고통(PD) .851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815, 그리고 까다로운 아동(DC)은 .873이며, 도구 전체의 신뢰도는 .914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표Ⅲ-2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N=417)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부모의 고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851
역기능적 상호작용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2	.815
까다로운 아동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2	.873
<b>전체</b>		<b>36</b>	<b>.914</b>

\* 역채점 문항

### 나. 훈육방식 척도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훈육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검사 도구는 최윤희(2020)가 제시한 한국형 훈육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척도는 문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을 지도하는 통제 방식에 의하여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합리적 반응형 9문항, 감정적 반응형 10문항, 과대허용적 반응형 8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리적 반응형은 온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의 행동에 대해 발달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여 자녀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공감하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유형으로 설명, 귀납적 추론 방식, 모델링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감정적 반응형은 문제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과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하며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유형으로 협박, 벌, 체벌 등을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수치심을 준다. 과대허용적 반응형은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자녀의 문제 행동 상황에서 자녀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본 연구의 응답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항상 그렇다)으로 응답되며, 하위요인별 총점이 높은 것이 주로 사용하는 훈육방식이 된다. 지난 일 년 동안의 훈육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을 기억하며 기록한다.

최윤희(2020)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합리적 반응형 .84, 감정적 반응형 .82, 과대허용적 반응형 .82로 나타났다. 다음 표Ⅲ-3은 본 연구에서 훈육방식을 묻는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이다. 훈육방식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합리적 반응형 .852, 감정적 반응형 .832, 과대허용적 반응형 .671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표Ⅲ-3 훈육방식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N=417)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합리적 반응형	1,2,4,7,11,18,21,25,26	9	.852
감정적 반응형	3,5,8,9,13,14,16,22,24,27	10	.832
과대허용적 반응형	6,10,12,15,17,19,20,23	8	.671

#### 다. 양육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김정미, 임희선, 허성호(2014)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orea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K-PSOC)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유능감 요인, 안정감 요인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고, 각각 8문항과 7문항의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유능감 요인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 및 어려움을 잘 관리하고 부모 역할을 바람직하게 해낼 수 있다는 부모 스스로의 판단 및 확신 정도와 관련되며, 안정감 요인은 부모 역할에서 느끼는 만족감 및 안정감의 정도와 관련된다(김정미 외, 2014).

각 문항 점수는 Likert식 5점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다. 전체 점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이며, 유능감 요인의 점수범위는 8-40점, 안정감 요인은 7-35점이다. 김정미, 임희선, 허성호(2014)의 연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8이었고, 하위요인별로 유능감 요인 .85, 안정감 요인 .81로 나타났다. 다음 표Ⅲ-4는 본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을 묻는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이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지수(Cronbach's  $\alpha$ )는 유능감 요인이 .867, 안정감 요인이 .800 이었고, 도구 전체의 신뢰도는 .875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표Ⅲ-4 양육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N=417)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유능감	1, 2, 3, 7, 8, 10, 11, 14	8	.867
안정감	4*, 5*, 6*, 9*, 12*, 13*, 15*	7	.800
전체		15	.875

\* 역채점 문항

###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훈육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인 부모의 성별, 부모의 연령, 총 자녀 수,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맞벌이 유무, 가정의 총 수입 등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a*)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변인 간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의 하위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 단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1단계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줄어들 때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종속변인에 대해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이며, 유의미한 경우에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다섯째,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Sobel, 1982)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의 계산식을 이용, Z점수의 절대값이 1.96 이상일 경우  $p < .05$ 수준, 2.58 이상일 경우  $p < .01$ 수준, 3.30 이상일 경우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Sobel, 1982).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대상자인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표IV-1에 제시하였다.

박원우 외(2010)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사용되는 다중 회귀분석의 경우 통계적 검정력을 0.8 이상을 유지하려면 최소 50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연구 상황에서는 100 이상의 표본크기가 되어야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수는 417명이므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요 변인의 하위요인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육스트레스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은 부모의 고통,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이다. 하위요인들의 5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부모의 고통은 평균 2.44,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평균 1.52, 까다로운 아동 관련은 평균 1.90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 값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훈육방식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은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이다. 각 하위요인의 4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합리적 반응형 평균 3.25, 감정적 반응형 평균 1.75, 과대허용적 반응형은 평균 1.51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총점이 높은 것이 주로 사용하는 훈육방식이 된다.

양육효능감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은 유능감과 안정감이다. 각 하위요인의 5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유능감은 평균 3.40, 안정감은 평균 3.85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 값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 결과를 보면 제주도내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전체 수준은 중간 값(보통)보다 낮았고, 양육효능감의 전체 수준은 중간 값(보통)보다 높았다. 또한 훈육방식은 합리적 반응형을 선택하는 사람이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형을 선택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자료수집 시기였던 2023년 1월 중순의 제주도내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부모효능감이 높으며 합리적인 훈육방식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왜도는  $\pm 2$  미만, 첨도는  $\pm 7$  미만이면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데(Curran, West & Finch, 1996),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표IV-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 (N=417)

변수	하위요인	가능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고통	1-5	2.44	.64	.06	-.31
	역기능적 상호작용	1-5	1.52	.36	.96	.66
	까다로운 아동	1-5	1.90	.58	.69	.06
	<b>전체</b>	1-5	1.96	.43	.27	-.60
훈육방식	합리적 반응형	1-4	3.25	.37	.14	-.53
	감정적 반응형	1-4	1.75	.43	.36	-.42
	과대허용적 반응형	1-4	1.51	.41	.35	-.98
	<b>전체</b>	1-4	2.18	.20	.23	-.23
양육효능감	유능감	1-5	3.40	.59	.14	.16
	안정감	1-5	3.85	.65	-.42	-.11
	<b>전체</b>	1-5	3.61	.53	-.13	-.21

##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연구문제 1의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체적으로 모든 주요 변인 간 상관은 유의했다. 그 결과는 표IV-2와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은  $r=-.377(p<.001)$ 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역기능적 상호작용  $r=-.411(p<.001)$ , 까다로운 아동  $r=-.290(p<.001)$ , 부모의 고통  $r=-.259(p<.001)$  순으로 모두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특히 부모와 자녀가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할수록 부모는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양육스트레스와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양육스트레스와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은  $r=.485(p<.001)$ 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까다로운 아동  $r=.446(p<.001)$ , 역기능적 상호작용  $r=.413(p<.001)$ , 부모의 고통  $r=.342(p<.001)$  순으로 모두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특히 그 하위요인이 까다로운 아동일수록 부모가 감정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양육스트레스와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양육스트레스와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은  $r=.376(p<.001)$ 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역기능적 상호작용  $r=.320(p<.001)$ , 부모의 고통  $r=.312(p<.001)$ , 까다로운 아동  $r=.298(p<.001)$  순으로 모두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특히 그 하위요인이 부모와 자녀가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할수록 부모는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양육효능감과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양육효능감과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은  $r=.499(p<.001)$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안정감  $r=.507(p<.001)$ , 유능감  $r=.357(p<.001)$  순으로 모두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아질수록 특히, 부모 역할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높을수록 부모는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양육효능감과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양육효능감과 감정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은  $r=-.496(p<.001)$ 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능감  $r=-.467(p<.001)$ , 안정감  $r=-.396(p<.001)$  순으로 모두 감정적 반응형의 훈육방식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아질수록 특히, 부모 역할에서 느끼는 유능감이 높을수록 부모는 감정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양육효능감과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양육효능감과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은  $r=-.396(p<.001)$ 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능감  $r=-.366(p<.001)$ , 안정감  $r=-.3226(p<.001)$  순으로 모두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아질수록 특히, 부모 역할에서 느끼는 유능감이 높을수록 부모는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r=-.661(p<.001)$ 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검증 되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기본조건이 충족된 것을 알 수 있다.

표IV-2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구분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훈육방식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	양육 효능감	유능감	안정감
양육 스트레스	1										
부모의고통	.817***	1									
역기능적 상호작용	.805***	.496***	1								
까다로운 아동	.837***	.448***	.598***	1							
훈육방식	.395***	.313***	.286***	.364***	1						
합리적 반응형	-.377***	-.259***	-.411***	-.290***	-.079	1					
감정적 반응형	.485***	.342***	.413***	.446***	.807***	-.392***	1				
과대허용적반 응형	.376***	.312***	.320***	.298***	.679***	-.533***	.433***	1			
양육 효능감	-.661***	-.496***	-.621***	-.538***	-.349***	.499***	-.496***	-.396***	1		
유능감	-.693***	-.597***	-.562***	-.546***	-.386***	.357***	-.467***	-.366***	.865***	1	
안정감	-.457***	-.267***	-.517***	-.390***	-.221***	.507***	-.396***	-.322***	.871***	.507***	1

\*\*\*  $p < .001$

### 3. 매개효과 분석

#### 가.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합리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 중 합리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 절차를 따랐고 그 결과는 표IV-3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유의미함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표IV-3 양육스트레스가 합리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N=417)

단계	변인	B	SE	$\beta$	t(p)	R <sup>2</sup> ( $\Delta R^2$ )	F(p)
1	양육스트레스 → 양육효능감	-.777	.043	-.661	-17.965***	.437 (.436)	322.732***
2	양육스트레스 → 합리적 반응형	-.311	.038	-.377	-8.280***	.142 (.140)	68.558***
3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 합리적 반응형	-.068 .312	.047 .040	-.083 .444	-1.461 7.841***	.253 (.249)	70.018***
공차= .563 / VIF 지수= 1.778							
Sobel's test Z = -9.00***							

\*\*\* p<.001

1단계에서는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약 43.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2=.437$ ),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다( $F=322.732$ ,  $p<.001$ ).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beta=-.661$ ,  $p<.001$ ),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약 1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2=.142$ ),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다( $F=68.558, p<.001$ ).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beta=-.377, p<.001$ ),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사용이 적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양육효능감이 종속변수인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약 25.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2=.253$ ),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다( $F=70.018, p<.001$ ). 그리고 공차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양육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양육효능감이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beta=.444, p<.001$ ), 이 때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beta=-.083, p>.05$ ), 양육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나타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9.00로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반응형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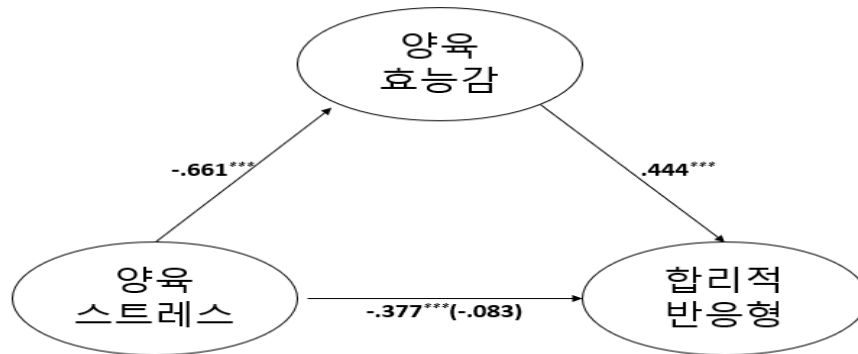


그림 IV-1 양육스트레스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

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감정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 중 감정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 절차를 따랐고 그 결과는 표IV-4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유의미함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표IV-4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N=417)

단계	변인	B	SE	$\beta$	t(p)	R <sup>2</sup> ( $\Delta R^2$ )	F(p)
1	양육스트레스 → 양육효능감	-.777	.043	-.661	-17.965***	.437 (.436)	322.732***
2	양육스트레스 → 감정적 반응형	.476	.042	.485	11.288***	.235 (.233)	127.419***
3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 감정적 반응형	.273 -.262	.054 .046	.278 -.313	5.032*** -5.662***	.290 (.286)	84.508***

공차= .563 / VIF 지수= 1.778

Sobel's test Z = 6.22\*\*\*

\*\*\* p<.001

1단계에서는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약 43.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2=.437$ ),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다( $F=322.732, p<.001$ ).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beta=-.661, p<.001$ ),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을 약 23.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2=.235$ ),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다( $F=127.419, p<.001$ ).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beta=.485, p<.001$ ),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사용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양육효능감이 종속변수인 감정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감정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약 2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2=.290$ ),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다( $F=84.508, p<.001$ ). 그리고 공차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양육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양육효능감이 감정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beta=-.313, p<.001$ ),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므로( $\beta=.278, p<.001$ ) 양육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나타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6.22로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감정적 반응형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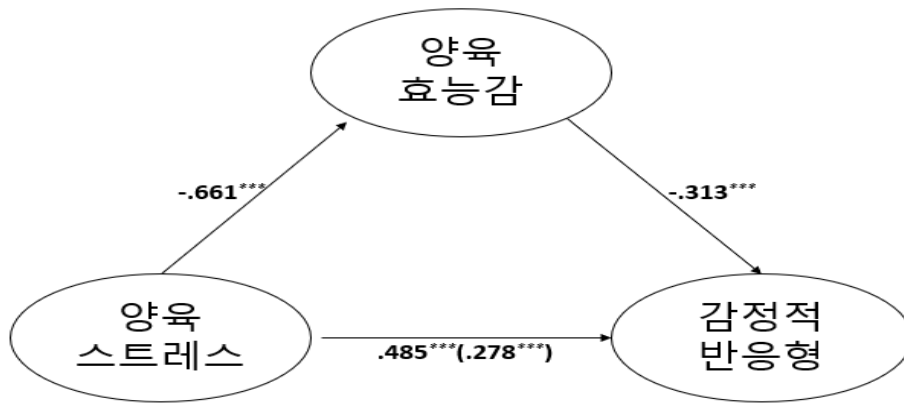


그림 IV-2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

#### 다.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과대허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 중 과대허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 절차를 따랐고 그 결과는 표IV-5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미함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표 IV-5 양육스트레스가 과대허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N=417)

단계	변인	B	SE	$\beta$	t(p)	$R^2$ ( $\Delta R^2$ )	F(p)
1	양육스트레스 → 양육효능감	-.777	.043	-.661	-17.965***	.437 (.436)	322.732***
2	양육스트레스 → 과대허용적 반응형	.409	.049	.376	8.274***	.142 (.140)	68.458***
3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 과대허용적 반응형	.273 -.242	.054 .055	.278 -.262	5.032*** -4.411***	.180 (.176)	45.478***

공차= .563 / VIF 지수= 1.778

Sobel's test Z = 4.55\*\*\*

\*\*\* $p < .001$

1단계에서는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약 43.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2=.437$ ),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다( $F=322.732$ ,  $p < .001$ ).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beta=-.661$ ,  $p < .001$ ),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을 약 1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2=.142$ ),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다( $F=68.458$ ,  $p < .001$ ).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beta=.376$ ,  $p < .001$ ),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사용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양육효능감이 종속변수인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약 1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2=.180.$ ),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다( $F=45.478, p<.001$ ). 그리고 공차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양육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양육효능감이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beta=-.262, p<.001$ ), 양육스트레스가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므로( $\beta=.278, p<.001$ ) 양육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나타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4.55로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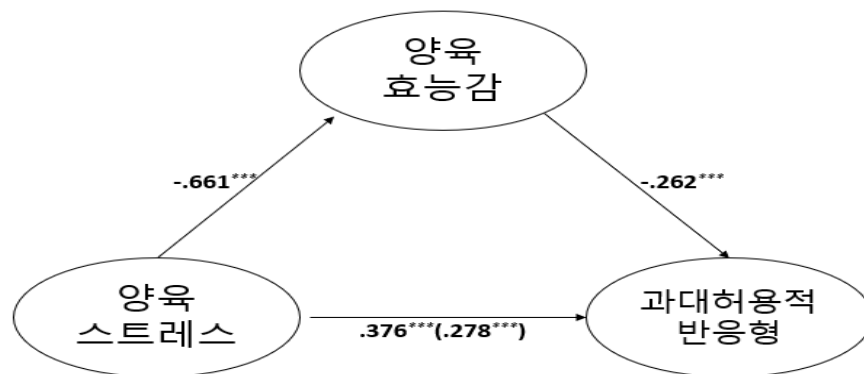


그림 IV-3 양육스트레스가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필자가 아동학대 상담원으로서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아동학대에까지 이르게 하는 사례를 다수 접하면서, 상담의 과정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각 변인 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양육스트레스는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과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가 아동을 훈육할 때,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음을 의미한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감정적이고 과대허용적인 반응을 이끄는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취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많이 선택하게 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하나, 2018; 신숙재, 정문자, 1998; 안지영, 2001; 장영애, 박정희, 2009; 장인숙, 2001; 최윤영, 2002; 홍윤정, 2022; Min & Moon, 2013; Wacharasin, 2001)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

는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김영미, 김정미, 2017; 김은영, 2005;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정신자, 2020; 조정희, 도미향, 2016; Cutrona & Troutman 1986; Gross 등, 1994; Levy-Shiff 등, 1998; Scheel & Rieckman, 1998) 결과와 일치한다.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면, 양육효능감과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은 정(+)<sup>적</sup> 상관을, 양육효능감과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은 부(-)<sup>적</sup>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온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의 발달에 맞게 행동 기준을 설정하여 유아를 존중하는 방법을 취하는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유아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체벌과 강압적인 형태로 훈육하는 감정적 반응형과, 부모의 권위가 없어 유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는 형태로 훈육하는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낮은 양육효능감이 더욱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훈육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김은영, 2005; 안지영, 2001; 양옥승, 이정란, 2003)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즉, 양육효능감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형태의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은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 절차를 따랐고,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유의미함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를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으로 구분하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합리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완전매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형 각각의 훈육방식을 부분매개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매개로써 양육효능감의 역할이 중요함을 나타내는데,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

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은영, 2005; 신숙재, 정문자, 1998; 안지영, 2001; 정신자, 2020)가 이를 지지한다.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의 관계를 완전매개 한다는 것은,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더라도,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면 합리적반응형 훈육방식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 하더라도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지지기반을 갖추고 부모가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유능감과 안정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면, 부모가 아동을 가르칠 때 아동을 존중하며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이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관계를 부분매개 한다는 것은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소 강압적이고 체벌적인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과 권위를 상실하고 유아의 문제행동을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양육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도록 만들지만, 양육효능감을 높여준다면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감정적·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선택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에게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더불어 부모 스스로가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감정적·과대허용적 훈육방식의 사용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을 전체적인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을 살펴 본 결과, 각 변인들 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는 검증되었다.

### 연구문제 2.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으로 구분하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첫 번째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합리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은 양육효능감에 의해 부분 매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가설 2.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과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단편적인 변인 간의 관계만을 밝힌 연구에서 한 단계 발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를 존중하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궁

정적인 훈육방식을 유아기 부모가 선택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양육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훈육방식의 하위요인별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양육스트레스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는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아동의 기질적인 특성이나, 부모 자녀 간의 적절하지 못한 상호작용 및 부모 자신의 특성에서 비롯된 양육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부모라면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없이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을 사용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높은 양육효능감을 지닌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 태도를 보이며, 더 나아가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유도하므로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는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낮춰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훈육방식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가 감정적·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처럼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훈육방식의 사용을 낮추고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데에는 양육효능감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병행되어 운영될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의미의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선택을 높이는 것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안정적인 애착 형성과 유아의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체벌 금지 및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부모가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고 궁극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긍정양육 슬로건을 내걸고 건강한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에서 부모 교육 및 상담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보여주며, 부모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해 꾸준한 상담 및 교육의 지원이 되어져야 하고, 모든 부모가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힌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은 아동학대행위자 상담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부모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부모에게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이끌기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운영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과 병행하여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척도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며, 어린이집 교사의 협조를 얻어 아동을 통해 부모에게 설문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설문 대상자들은 방어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평가 외에 면담 및 행동 관찰 등 자료수집의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자기 보고식 설문지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에 기초하였으므로 심층 상담과 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로서,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변인의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이에 후속 연구에서도 부모의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설정하여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양육 기술 교육 및 상담에 필요한 좀 더 포괄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는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에 있어 매개효과를 가

진다는 이론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과 가정을 연계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 실제로 적용된다면 본 연구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정민(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소영(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현, 강희경(1997). 논문편: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Human Ecology Research(HER)*, 35(5), 141-150.
- 김도란, 김정원(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간의 관계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11-333.
- 김민정(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선미(2015). 부와 모간의 양육태도, 훈육방식, 유아문제행동 인식 차이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2023). '친권자 징계권'관련 뉴스 기사의 이슈 분석. *아동과 권리*, 27(1), 259-276.
- 김수경, 장영애(2010). 취학 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아동의 기질,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의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4), 605-618.
- 김영미, 김정미(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상호작용 행동과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37(2), 169-187.
- 김정미, 임희선, 허성호(2014).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 및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2), 1-21.

- 김지영(2015). 영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스트레스연구*, 23(2), 91-100.
- 김지현, 박경자(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8.
- 김지혜, 정익중, 이희연, 김경희(2013).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5(2), 131-154.
- 김창복, 이신영(2013).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319-350.
- 김하나(201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김은영, 황인주, 이승미(2008).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활동집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 *육아지원연구*, 3(2), 177-192.
- 김혜원(201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훈육행동 유형이 유아기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문혁준(2000). 부모 훈육방법의 세대간 전이. *대한가정학회지*, 38(5), 107-119.
- 문혜련(1998).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만호(2014). 아버지 양육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연, 진춘애, 한세영(1996). 논문편 :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Human Ecology Research(HER)*, 34(4), 203-215.
- 박성환(2013). 블렌디드러닝 기반 부모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원우, 손승연, 박해신, 박혜상(2010). 걱정 표본크기 결정을 위한 제안. *서울대학교 노사관계연구*, 22, 51-85.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

-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준희(2009).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 및 양육행동과 영아발달 :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해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 도미향(2019).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이 양육효능감의 매개를 통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4(1), 55-67.
- 백영숙(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분석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22(4), 1147-1168.
- 성지현, 백지희(2011).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의 타당화 연구: 영역별 양육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135-150.
- 성태제, 시가자(2006). **연구방법론**. 학지사
- 송경화(2017).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모-아 상호작용이 영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정애(2016). **어머니의 원가족경험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의 매개변인을 중심으로-**. 협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숙재, 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신현정, 이은영(2016). 아동상담가인 어머니가 체험한 양육에서의 '세대 간 전이'. **정서·행동장애연구**, 32(4), 205-231.
- 안선경, 양지혜, 정익중(2012).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38(-), 331-358.
- 안순조(2005). **어머니 훈육방식별 유아의 정서지능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정신(2020).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자비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

- 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옥승,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력 관련변인간의 관계 분석. **교육방법연구**, 15(2), 145-161.
- 오정옥, 이경원(2015). 미취학아동 부모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훈육과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2), 247-271.
- 우희정, 이숙(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 - 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1), 71-90.
- 위호성(201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양육 특성, 지역사회 특성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우영, 이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양육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Human Ecology Research(HER)**, 36(10), 65-78.
- 이경님(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아동의 사려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2), 97-110.
- 이문희, 이수림(2015). 부정적 양육의 대물림 극복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중년여성의 양육경험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5), 417-438.
- 이민자(2008). **늦부모와 일반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 만족도,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에 관한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정(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희, 고인숙, 심정선(2009). 부모가 지각한 원가족과 부모의 양육스타일 및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111-134.
- 이연숙(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주, 김진숙(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5), 2229-2249.
- 이진선(2007). **R. S. Peters의 벌과 훈육에 대한 견해 검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완(2020년, 6월 16일). 훈육 핑계 친권자의 학대 ‘원천 금지’...‘사랑의 때’ 범 위 논란 분분. **문화일보**. <https://zrr.kr/A7Oq>.
- 이현주(2003). 어머니의 훈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부용(201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희수(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인숙(2001).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 격리불안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정(2005). 체벌에 대한 신념과 양육스트레스가 체벌 행동을 매개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2008).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Korean-Parenting Stress Index: K-PSI)의 표준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3), 689-707.
- 정계숙, 차지량, 김미나(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역량과 분노 표현과의 관계: 자녀에 대한 염려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2), 37-57.
- 정다원(2013). 부모의 정서조절양식과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의 경향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신혜(2019). 한국판 부모지각 훈육행동척도(PPI-P)의 번안 및 타당화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숙(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련성탐색.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은영(2009).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향(2003).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간 양육태도 일치정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녀, 문영경(2016).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7, 125-156.
- 최숙경(2004).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미, 이희영(2017). 가정의 소득수준과 부모의 훈육방식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9(1), 1-22.
- 최윤영, 김지혜, 조선미, 홍성도, 오은영(2002).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우울감,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 관련 태도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3(1), 153-162.
- 최형성,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최혜정(2016). 아버지의 자녀양육특성과 자녀의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편은숙(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녀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영희(1997).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과 여가제약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경지(2023).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혜, 정희정(201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8(3), 1-25.
- 홍윤정(2022).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진(2017). 어머니 훈육방식과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07-412.



- Abidin, R. R.(1995). *Parenting Stress Index (PSI) manual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Allen, C.(1993). *An investigation of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 Bandura, A., & Walters, R. H.(1959). *Adolescent aggression*. New York: Ronald.
-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 Pt.2), 1 - 103.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Baumrind, D., Larzelere, R. E., & Owens, E. B.(2010). Effects of preschool parents'power assertive patterns and practices on adolescent development.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0(3), 157-201.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Capaldi, D., Pears, K., Patterson, G., & Owen, L.(2003). Continuity of parenting practices across generations in an at-risk sample: A prospective comparison of direct and mediated associa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127-142.
- Calzada, E. J., & Eyberg, S. M.(2002). Self-reported parenting practices in Dominican and Puerto Rican mot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3), 354 - 363.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56, 754-761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nger R., Nepl T., Kim K., & Scaramella, L.(2003). Angry and aggressive behavior across three generations: A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2), 143-160.
-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Cutrona, C. E., & Troutman, B. R.(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ix, T., Ruble, D. N., & Zambarano, R. J.(1989). Mothers' implicit theories of discipline: Child effects, parent effects, and the attribution process. *Child Development, 60*(6), 1373-1391.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2), 295-305.
- Dumka, L. E., Stoerzinger, H., Jackson, K., & Roosa, M. W.(1996). Examination of the cross cultural and cross 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Elder, G., Eccles, J., Ardel, M., & Lord.(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 sure; P 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 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 771-784.
- Forehand R., Wells K., & Griest D.(1980). Anexamination of the social validity of a parent-training program. *Behavior Therapy, 11*, 488-502.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1978). *Development and utility*

-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lueck S., & Glueck, E.(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ttman, J. M.(1997). *The heart of parenting: How to raise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 New York, NY: Simon & Schuster.
- Gross, D., Conrad, Fogg, L., & Wothke, W.(1994).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7*, 207-215.
- Henry, R. M.(1980).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reasoning" in the socialization of young children. *Human Development, 23*, 105-125.
- Hoffman, M. L., & Saltzstein, H. D.(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45-57.
- Hurlock, E. B.(1978). *Child development(6th ed.)*. Tokyo: McGraw-Hill Kogakusha.
-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2), 167-175.
- Junttila, N., Vauras, M., & Laakkonen, E.(2007). The role of parenting self-efficacy in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Education, 22*(1), 41-61.
- Kazdin, A. E.(1987). *Conduct disord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bury Park, DA:Sage.
- Kostelnik, M. J., Whiren, A. P., Soderman, A. K., & Gregory, K. M.(2015).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교육(제6판)**. 박경자, 김송이, 권연희, 김지현(공역). 과주: 교문사. (원서출판 2009).
- Luster, T., & Kain, E. L.(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3), 301-311.

- Marion, M.(2010). *Guidance of young children (8th ed.)*. NJ: Merrill Prentice-Hal.
- McCord, W. McCord, J., & Howard, A.(1961). Familial correlates of aggression in non-delinquent mal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79-93.
- MacKinnon, D. P., & Dwyer, J. H. (1993). Estimating mediated effects in prevention studies. *Evaluating Review, 17*, 144-158.
- Min, H. S., & Moon, Y. K.(2013). Relationship among mother’s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maternal parenting stress,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 (1), 43-56.
- Mondell, S., & Tyler, F. B.(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 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73 - 78.
- Scheel, M. J., & Rieckman, Y.(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15-27.
- Shumow, L., & Lomax, R.(2002). Parental efficacy: Predictor of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outcome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2*(2), 127-150.
- Simons, R. I., Beaman J., Conger, R. D., & Chao W.(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398.
- Stevens, J. P.(1996).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
- Synder, J.(1991). Discipline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maternal stress and mood on child conduct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 263-276.

- Teti, D. M., & Gelfand, D. H.(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Wacharasin, C.(2001). *Predicting child cognitive development in low-income families*.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Nursing.
- Webster-Stratton, C., Kolpacoff, M., & Hollinsworth, T.(1988). Self-administered videotape therapy for families with conduct-problem children: Comparison on witht wocost-effect ivetreatment sanda control gro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558-566.
- Winch, J. D.(1971). Test anxiety and direction of att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76*(2), 92-104.
- 서울신문(2022년, 1월 25일). “훈육 위해 때렸다” 변명, 아동학대죄 형량 못 줄인다. <https://zrr.kr/w2cZ> (접속일: 2022. 11. 23.).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in Early  
Childhood Parents on Discipline method: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Choi, Jeong Yu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Sung Bong

In this study, we tri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discipline method of parents raising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2 and 5 living in Jeju Island. The research questions se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Is there a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discipline methods, and parenting efficacy in parents of children in early childhood?

Research question 2. Is there a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stress and discipline methods in infancy?

For this study, 417 parents raising infant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2 and 5 who are enrolled in a daycare center in Jeju Island were selected as a cluster sample,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directly distributing and collecting questionnaires.

As a measuring tool used in this study, the parenting stress of parents is the reduced parental stress scale (PSI-SF) presented by Abidin (1995)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reduced parental stress scale (PSI-SF) standardized by Kyungmi Jeong, Kyungsook Lee, Jina Park, and Hyejin Kim (2008). A type checking tool (K-PSI-SF) was used. As for the discipline method, the discipline type scale developed and validated by Choi Yoon-hee (2020) was used. Parenting efficacy was measured using the Korea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K-PSOC) developed by 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 and adapted and validated by Jungmi Kim, Lim Hee-sun, and Heo Sung-ho (2014).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18.0.

The main res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discipline method, and parenting efficacy of parents with children in infanc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Second, in the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iscipline method,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was confirmed by dividing it into rational response type, emotional response type, and over-acceptable response type, which are sub-factors of parenting. As a result, parenting efficacy completely mediates the discipline metho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rational response type, and partially mediat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emotional response type, and over-acceptable response type.

Taken together,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parents with high parenting efficacy, even if they have parenting stress, choose a rational response type discipline method, and can act as a factor in lowering the use of emotional response type and over-acceptable response type discipline method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can contribute to spreading a positive parenting culture and preventing child abuse in our society by providing necessary data to set the direction of parental education and counseling to help parents control parenting stress on their own, pursue positive and reasonable discipline.

**Key words: early childhood parents, parenting stress, discipline method, parenting efficacy, mediating effect**



<부록>

이 설문지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님의 바람직한 자녀 양육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모든 문항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까운 내용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대학교 특수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김성봉

연구자: 최정윤

□ 귀하 및 설문지를 가지고 온 자녀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시면 됩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부) ② 여(모)
2. 설문을 하시는 부모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5세 이하 ② 26-30세 ③ 31-35세 ④ 36-40세 ⑤ 41세이상
3. 현재 총 자녀의 수는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이상
4.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본 설문지를 가지고 온 해당 자녀의 성별)  
① 남아 ② 여아
5. 자녀의 연령은?  
① 만2세(4세) ② 만3세(5세) ③ 만4세(6세) ④ 만5세(7세)
6. 현재 귀택은 맞벌이 가정입니까?  
① 맞벌이(예) ② 외벌이(아니오)
7. 요즘 가정의 총 수입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① 300만원이하 ② 301~400만원 ③ 401~500만원 ④ 501만원 이상

□ 귀하가 평소에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귀하가 자녀에게 지난 한 달 동안 각각의 문항에서 나타내는 방식대로 행동했는지 생각하며 해당 칸에 ✓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아이의 고쳐야 할 행동이 발견되면 그것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2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에 대해 아이에게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3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회를 내며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4	아이에게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5	아이에게 '저리가 귀찮아'라는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6	아이에게 상처주기 싫어서 잘못된 행동도 그냥 넘어간다	①	②	③	④
7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①	②	③	④
8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라고 겁을 준다	①	②	③	④
9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 엉덩이, 팔 등을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아이가 회를 내거나 징징거리면 그냥 쳐주게 된다	①	②	③	④
11	아이의 옳고 그른 행동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아이에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2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3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더 혼내게 된다	①	②	③	④
14	아이에게 화가 나서 비보같이 멍창이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5	말로 타일러도 안되면 그냥 내버려둔다	①	②	③	④
16	아이에게 '너 때문에..'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7	아이가 떼를 쓰면 그냥 넘어간다	①	②	③	④

번호	문항(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8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랬는지 의도를 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9	아이가 어른에게 버릇없이 굴어도 그냥 넘어간다	①	②	③	④
20	아이에게 '안돼'라고 말해도 듣지 않으면 잔소리하기 싫어서 못본 척 그냥 넘어간다	①	②	③	④
21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22	아이를 훈육하다가 화가 나서 아이를 두고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문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3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떼를 쓰면 민망해서라도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	①	②	③	④
24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실제로 하지도 못할 일을 하겠다고 아이에게 겁을 준다	①	②	③	④
25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26	아이에게 혼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27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소리를 지른다	①	②	③	④

□ 귀하가 평소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를 염두해 두고 문항을 읽어가면서 부모님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끔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나는 새롭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최근에 내가 구입한 옷 때문에 기분이 짹짹하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내 생활에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꽤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배우자(또는 자녀를 돌봐주는 가족)와 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혼자이고 친구도 없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모임에 갈 때 나는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예전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예전만큼 어떤 일들을 즐기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아이는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대부분의 경우, 나는 우리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아이는 내가 바라는 것 만큼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아이는 놀 때 보통 소리 내어 웃거나 즐겁게 웃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보다 잘 웃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아이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아이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 자신이 정말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아이에 대해 좀 더 친밀하고 따뜻한 감정을 갖고 싶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24	때때로 우리 아이는 나를 귀찮게 하려고 일을 저지른다	①	②	③	④	⑤
25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자주 울거나 보채고 까다롭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우리 아이는 대체로 잠에서 깨어나면 기분이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7	우리 아이는 매우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쉽게 화를 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 아이는 가끔 나를 무척 속상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우리 아이는 자신이 싫어하는 일이 생기면 매우 강하게 반발(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우리 아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기분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우리 아이에게 규칙적인 취침 및 식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예상 외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32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또는 중지시킬 때 생각보다 매우 수월하다	①	②	③	④	⑤
33	아이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예를 들면 게으르다.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과잉 활동적이다. 잘 운다. 방해한다. 싸운다. 소리지른다. 등)이 몇 가지 있는지 잘 세어보십시오. 그 수를 골라 표시하십시오. ① 1-3개 ② 4-5개 ③ 6-7개 ④ 8-9개 ⑤ 10개 이상	①	②	③	④	⑤
34	우리 아이는 나를 몹시 괴롭히는 일들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우리 아이는 생각과는 달리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②	③	④	⑤
36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엄마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가 평소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드는 생각이나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내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겠지만 부모로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려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로서 지내온 시간을 생각해볼 때 나는 부모역할이 매우 약속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모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때때로 부모로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재능과 흥미는 부모역할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매일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로서의 나의 역할은 나를 긴장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